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및 2017년 1/4분기 전망(SBSI)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eunhyung@ricon.re.kr



< 목 차 >

- | | |
|---------------------|----------------------------|
| I. 조사개요 | I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
|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 IV. 전문건설업 경영 애로사항 |

요 약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61.6p 으로 조사됨. 이는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분기의 전망치와 비교한다면 4/4분기의 그간의 시장상황이 예상처럼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난 3분기에는 건설시장이 긍정적임에도 전문건설업체들의 경기판단이 하락한 이유로 공사발주의 증가가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 증대로 이어지는 시차가 지목되었음. 따라서 이번 4분기에 전문건설업체들의 평가결과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이번 조사를 4분기 전체의 건설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임.
- 2017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3.5로 이번 4/4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로 나타남.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와 경제상황의 악화 및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같은 지원정책에 따라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 건설사들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및 자금수급의 어려움 등은 업계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2016년의 건설투자증가에 따른 건설업 및 관련산업의 호황이 금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등도 함께 감안해야 함.

Ⅰ 2016년 4/4분기 평가 및 2017년 1/4분기 전망>

구분		전체 BSI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평가	72.5	85.7	73.3	68.8	84.0	65.9	65.6	78.4
	3/4분기 평가	64.6	83.3	67.9	58.1	81.8	55.8	92.3	46.2
	4/4분기 평가	58.9	85.7	60.6	54.0	88.9	46.0	63.2	55.8
2016	1/4분기 평가	67.1	100.0	50.0	73.9	77.8	65.7	51.7	76.6
	2/4분기 평가	70.1	75.0	73.1	67.4	84.6	67.2	64.5	73.9
	3/4분기 평가	56.3	80.0	69.6	44.4	60.0	55.6	70.0	50.0
	4/4분기 평가	61.6	75.0	69.7	53.3	68.4	59.7	82.5	43.5
2017	1/4분기 전망	53.5	75.0	60.6	44.4	68.4	49.3	65.0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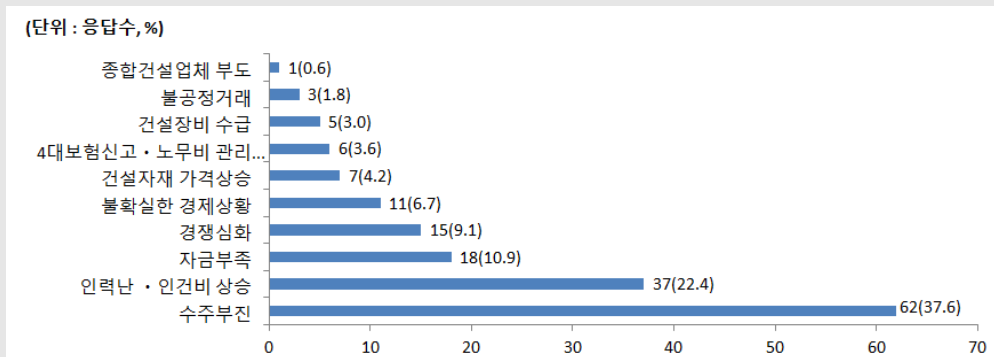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세부항목별 지수를 3/4분기와 비교하면 총 8개 항목 중 2개 항목(원도급·하도급)은 상승, 3개 항목(인력수급·자재수급·자재가격)은 하락, 3개 항목(공사대금수급·자금조달·인건비)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Ⅰ 세부항목별 2016년 4/4분기 평가 및 2017년 1/4분기 전망>

구분		전체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실적	55.8	75.0	57.6	51.1	73.7	50.7	70.0	43.5
	전망	53.5	75.0	57.6	46.7	68.4	49.3	57.5	50.0
하도급	실적	58.1	62.5	60.6	55.6	73.7	53.7	72.5	45.7
	전망	61.6	62.5	63.6	60.0	73.7	58.2	62.5	60.9
공사 대금수급	실적	80.2	62.5	63.6	60.0	73.7	58.2	62.5	60.9
	전망	74.4	100.0	75.8	68.9	78.9	73.1	72.5	76.1
자금 조달	실적	57.0	87.5	54.5	53.3	73.7	52.2	65.0	50.0
	전망	59.3	100.0	72.7	42.2	78.9	53.7	70.0	50.0
인력수급	실적	67.4	62.5	69.7	66.7	78.9	64.2	67.5	67.4
	전망	68.6	62.5	72.7	66.7	73.7	67.2	65.0	71.7
인건비	실적	43.0	87.5	42.4	35.6	73.7	34.3	50.0	37.0
	전망	41.9	62.5	48.5	33.3	73.7	32.8	50.0	34.8
자재 수급	실적	93.0	87.5	90.9	95.6	94.7	92.5	92.5	93.5
	전망	90.7	87.5	90.9	91.1	89.5	91.0	90.0	91.3
자재 가격	실적	51.2	87.5	54.5	42.2	73.7	44.8	65.0	39.1
	전망	47.7	75.0	54.5	37.8	73.7	40.3	57.5	39.1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주부진(37.6%)’이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22.4%)’도 지난 3/4분기(21.5%)에 이어 다수 응답으로 자리를 굳힘.
-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10.9), 경쟁심화(9.1%), 불확실한 경제상황(6.7%), 건설자재 가격상승(4.2%), 4대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6%), 건설장비수급(3.0%), 불공정거래(1.8%), 종합건설업체의 부도(0.6%) 순으로 나타남.

Ⅰ 201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 경기변동은 기업활동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기업가의 의도나 심리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경기실사지수는 다른 경기지수와 달리 내수, 수출, 설비투자, 고용수준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조사할 수 있음. 또한 조사방식이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므로 경기대응성이 높고, 경제통계로는 포착할 수 없는 기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수량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현재 경기실사지수는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재정부, 무역협회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음.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특히 건설시공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경기전망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¹⁾.
 - 또한 건설, 제조, 설비 등 산업에서 하도급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하도급업체의 경기인식과 판단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부족했음.
 - 본 조사는 하도급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타 조사에 비해 중소기업체들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는 특징을 가짐.
- 전문건설업의 경기실사지수 조사 분석은 향후 경기전망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대내외 위상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

1) 전문건설업체는 경기실사지수는 2009년부터 분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조사내용

- 2016년도 4/4분기 전문건설업의 경기판단과 향후 2017년 1/4분기 경기전망 조사를 위해 총 10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문건설업 경기판단, 세부항목(공사물량, 자금사정, 인력수급, 자재수급) 및 경영애로사항으로 구성됨.

표 1 | 설문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사업체 개요		- 기업명 및 작성자 일반사항
건설 경기 전망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전반적 경기실적
	항목별 건설경기 (전분기대비 금분기)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차기분기 건설경기 전망	- 공사물량 (원도급, 하도급) - 자금사정 (공사대금수급, 자금조달) - 인력수급 (인력수급, 인건비) - 자재수급 (자재수급, 자재가격)
경영애로사항		- 애로사항 및 정책적 요구사항 기술

3. 조사대상 및 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회원사 중에서 선별된 289개사의 모니터링단에게 건설경기 판단에 관한 자계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표본은 기업규모(대·중·소)와 본사 소재지(수도권·지방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 기업규모는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업종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구분함. 대형업체는 시공능력평가액 200억원 이상, 중형업체는 34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소형업체는 34억원 미만인 업체로 구분함.
 - * 본사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수도권, 그 이외의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를 지방권으로 구분함.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는 수도권 업체가 96개사(33.2%), 지방권 업체는 193개사(66.8%)로 이루어짐.
- 설문지를 배포한 289개사 중 86개사(회수율: 29.7%)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에 활용됨.
 - 설문지가 회수된 86개사는 대형업체 8개사(9.3%), 중형업체 33개사(38.4%), 소형업체 45개사(52.3%)로 구성됨. 이중 수도권 업체는 19개사(22.1%), 지방권 업체는 67개사(77.9%)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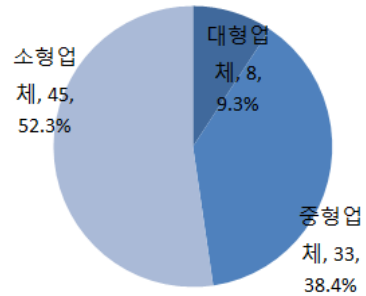
표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를 위한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구분	배포(개사, %)	회수(개사, %)
수도권	96(33.2)	19(22.1)
지방권	193(66.8)	67(77.9)
전체	289(100.0)	86(100.0)

표 3 | 응답업체의 기업규모별 현황

구분	업체수(%)
대형업체	8(9.3)
중형업체	33(38.4)
소형업체	45(52.3)
전체	86(100.0)

(단위 : 개사, %)



- 응답업체들의 주업종별²⁾ 분포는 상하수도설비공사사업 14개사(16.3%), 철근콘크리트공사사업 12개사(14.0%), 토공사사업이 11개사(12.8%), 도장공사사업이 8개사(9.3%), 비계구조물공사사업 5개사(5.8%), 포장공사사업 5개사(5.8%), 강구조물공사사업 5개사(5.8%), 석공사사업 4개사(4.7%), 기타 공사사업 22개사(22.5%)로 나타남.

2) 응답업체들은 다수 면허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파악함

표 4 | 응답업체의 업종별 현황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구 분	업체수(%)
상하수도설비	14(16.3)	도 장	8(9.3)	강구조물	5(5.8)
철근콘크리트	12(14.0)	비계구조물	5(5.8)	석 공	4(4.7)
토 공	11(12.8)	포 장	5(5.8)	기 타	22(25.5)
합계			86(100.0)		

- 한편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분석을 위해 건축 및 토목중심 업종을 공사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표-5>와 같이 구분함.

표 5 | 전문건설업 업종 구분 기준

구 분		업 종
전문건설업	건축중심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구조물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등
	토목중심 업종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등

II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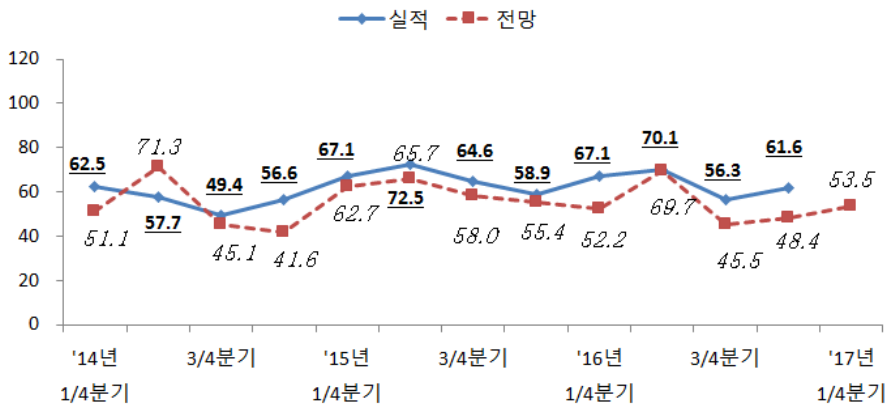
1.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평가 및 2017년 1/4분기 전망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3/4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61.6(56.3점→61.6점)으로 조사됨.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2년간의 추세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분기의 4/4분기 전망치가 48.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의 시장상황이 예상처럼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지난 3분기의 경우 건설투자증가율과 GDP성장률 등이 2분기보다 증가했고 건자재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건설시장의 현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체들의 경기판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앞서의 결과는 전체 공사발주의 증가가 하도급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량 증대로까지 이어지는데 필요한 시차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따라서 다음 분기인 이번 4분기에 전문건설업체들의 평가결과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4분기 전체의 건설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이에 더해 지난 믹서트럭과 철도파업 등으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면서 4분기와 이어지는 동계에도 공사를 지속하는 건설현장들³⁾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하면, 4분기의 지수개선을 전문건설업계의 현황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2017년 1/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은 53.5로 이번 4/4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철을 끼고 있다는 점과 함께 경제상황의 악화와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예년과 동일하게 정부재정의 상반기 조기집행같은 지원정책의 실효성에 따라 차츰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3) 실제로 지난 12월 말까지 선주문된 철근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서는 추후 레미콘 등의 자재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임.

●● 건설동향

- 최근 들어 정부와 주요 민간기관들은 2017년의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바 있으며, 건설투자증가율에 대한 전망도 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임.
 - 일각에서는 2017년에 만기도래하는 건설업의 회사채 규모를 거론하며 위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비슷한 지적과 정부대처가 이어진 것을 보면 이로 인한 위기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건설사들의 자금조달비용 상승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심사강화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자금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은 간과할 수 없음.
 - 이는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의 협력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할 정도의 우량업체들에게 공사발주가 집중하면서 업계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음. 이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과도 일면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임.
 - 하지만 지난 해의 건설투자증가에 따른 건설업 및 관련산업의 호황이 금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면 전문건설업계의 평가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음.
- 기업규모별로는 대형업체는 3/4분기보다 소폭 하락 5.0p(80.0점 → 75.0점), 중형업체는 0.1p(69.6점 → 69.7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형업체는 8.9p(44.4점 → 53.3점) 상승한 결과가 조사됨.
- 지난 2년의 조사치에 비추어보면 대형업체의 응답결과는 평균적인 수준을 약간 하회하는 것임. 중형업체의 결과는 2016년 하반기의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형업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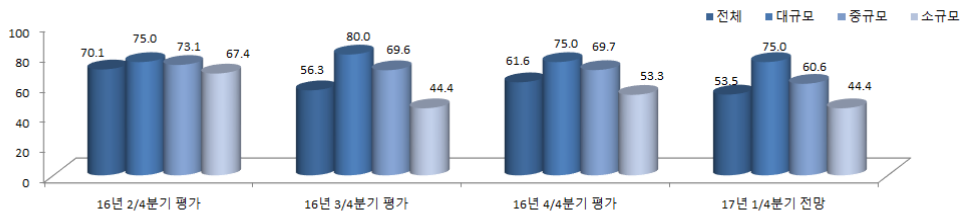
| 그림 1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실적 및 전망 추이

표 6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17년 1/4분기 전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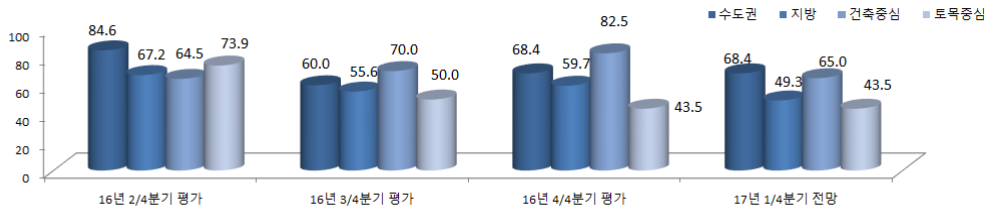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2009	1/4분기 평가	39.0	29.5	42.6	40.2	35.7	40.1	33.2	52.6
	2/4분기 평가	46.9	50.0	48.9	44.9	52.9	45.0	47.5	45.6
	3/4분기 평가	52.6	52.0	50.8	54.2	62.3	49.6	51.4	55.3
	4/4분기 평가	40.1	44.4	36.1	41.1	39.4	40.3	39.8	40.8
2010	1/4분기 평가	41.4	37.5	45.0	40.3	42.5	40.9	40.6	43.0
	2/4분기 평가	40.8	44.4	39.4	40.8	44.0	39.8	41.8	38.9
	3/4분기 평가	22.2	25.0	18.3	24.2	23.3	21.8	24.2	19.0
	4/4분기 평가	35.0	41.2	35.9	31.6	32.1	36.0	38.3	29.5
2011	1/4분기 평가	23.9	31.3	27.8	22.2	30.0	21.4	27.3	17.8
	2/4분기 평가	38.8	75.0	25.0	38.9	40.6	38.1	42.2	31.4
	3/4분기 평가	34.4	16.7	47.6	33.9	31.9	35.5	37.6	29.7
	4/4분기 평가	30.8	30.0	32.9	32.3	36.9	32.3	36.0	24.6
2012	1/4분기 평가	40.3	40.7	46.3	38.6	28.0	45.3	43.8	34.3
	2/4분기 평가	54.4	61.9	56.0	52.9	44.1	58.4	57.2	49.4
	3/4분기 평가	42.2	52.9	42.0	39.3	31.5	47.0	47.6	33.3
	4/4분기 평가	35.8	43.2	38.7	29.5	39.1	33.6	43.5	20.5
2013	1/4분기 평가	40.9	52.2	35.1	41.3	39.6	41.7	43.9	35.0
	2/4분기 평가	35.9	47.8	30.9	35.2	36.7	35.4	40.6	26.6
	3/4분기 평가	34.6	41.3	32.0	34.1	31.1	36.8	36.8	30.4
	4/4분기 평가	47.4	52.2	43.0	49.0	43.5	49.7	51.0	41.6
2014	1/4분기 평가	62.5	66.7	63.6	60.5	68.0	62.5	62.5	62.5
	2/4분기 평가	57.7	83.3	38.1	63.6	38.5	62.1	61.5	55.6
	3/4분기 평가	49.4	100.0	47.8	40.0	81.0	37.5	56.3	44.4
	4/4분기 평가	56.6	84.6	70.4	39.5	74.1	48.2	75.8	44.0
2015	1/4분기 평가	67.1	85.7	40.0	81.6	64.3	69.0	77.8	60.5
	2/4분기 평가	72.5	85.7	73.3	68.8	84.0	65.9	65.6	78.4
	3/4분기 평가	64.6	83.3	67.9	58.1	81.8	55.8	92.3	46.2
	4/4분기 평가	58.9	85.7	60.6	54.0	88.9	46.0	63.2	55.8
2016	1/4분기 평가	67.1	100.0	50.0	73.9	77.8	65.7	51.7	76.6
	2/4분기 평가	70.1	75.0	73.1	67.4	84.6	67.2	64.5	73.9
	3/4분기 평가	56.3	80.0	69.6	44.4	60.0	55.6	70.0	50.0
	4/4분기 평가	61.6	75.0	69.7	53.3	68.4	59.7	82.5	43.5
2017	1/4분기 전망	53.5	75.0	60.6	44.4	68.4	49.3	65.0	43.5

●● 건설동향

- 2016년 4/4분기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업체는 68.4로 상승, 지방권업체도 59.7로 소폭 상승하면서 수도권의 상승폭이 지방권보다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남. 2017년 1/4분기 전망은 수도권은 68.4로 이번조사결과와 동일한 반면 지방권은 49.3으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나타남.
- 4분기 평가는 3분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연도의 건설경기 호황이 주로 수도권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임. 2017년 1분기의 전망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 2016년 4/4분기 업종별 경기실사지수는 건축중심 업종은 82.5으로 3/4분기보다 크게 상승한 반면, 토목중심 업종은 43.5로 큰 하락을 나타냄. 2017년 1/4분기에 대한 전망은 건축은 65.0으로 하락, 토목은 43.5로 2016년 4/4분기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
- 다소의 등락은 논외로 하더라도 건축중심 업종과 토목중심 업종간에 나타난 큰 차이는 현재의 건설시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실제로 토목부분의 공사발주는 건설과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관련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도 행해지는 상황임.



| 그림 2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기업규모)



| 그림 3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추이(지역 및 업종별)

Ⅲ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1. 공사물량지수 (원도급, 하도급)

- 2016년 4/4분기의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는 원도급이 55.8(45.3점→55.8점)로 3/4분기보다 크게 상승, 하도급도 58.1(51.6점→58.1점)로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냄.
 - 이번 조사결과는 앞서 살펴본 전문건설업이 후행적으로 체감하는 공사수주물량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이에 더해 지난 3분기에 주춤했던 공사발주감소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실제로 토공과 철콘 등 주요 전문건설업의 2016년 3분기 누적계약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더구나 국토교통부 등 주요 기관들의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전분기보다 감소했거나 계획된 집행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이같은 상황에서 집행된 4분기의 재정집행이 원도급을 중심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실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공사물량지수의 평가를 살펴보면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기업규모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원도급의 경우 대규모 기업과 중·소규모 기업간의 차이가 특히 컸음. 지역별로는 원·하도급 모두 수도권이 지방보다 모두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가 크게 높았음.
- 2017년 1/4분기의 공사물량지수 전망은 원도급은 2016년 4/4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도급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원도급의 경우 동계비수기라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4분기에 비해 그리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며, 하도급은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후행적인 공사수주 등을 감안하면 계절적인 추세를 따를 것으로 예상됨.

표 7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공사물량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원도급	'16년 4/4분기 평가	55.8	75.0	57.6	51.1	73.7	50.7	70.0	43.5
	'17년 1/4분기 전망	53.5	75.0	57.6	46.7	68.4	49.3	57.5	50.0
하도급	'16년 4/4분기 평가	58.1	62.5	60.6	55.6	73.7	53.7	72.5	45.7
	'17년 1/4분기 전망	61.6	62.5	63.6	60.0	73.7	58.2	62.5	6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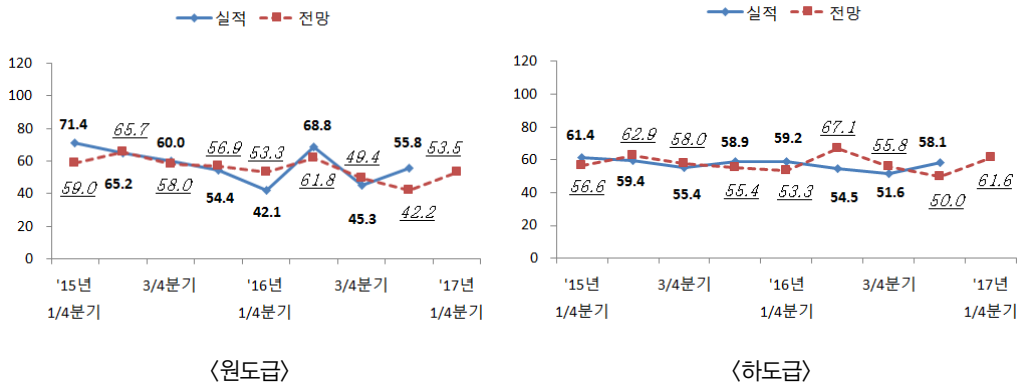


그림 4 | 원·하도급 공사물량지수 추이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2016년 4/4분기의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는 공사대금수금이 80.2(78.1점→80.2점)로 3/4분기보다 소폭 상승, 자금조달지수도 57.0(54.7→57.0점)로 소폭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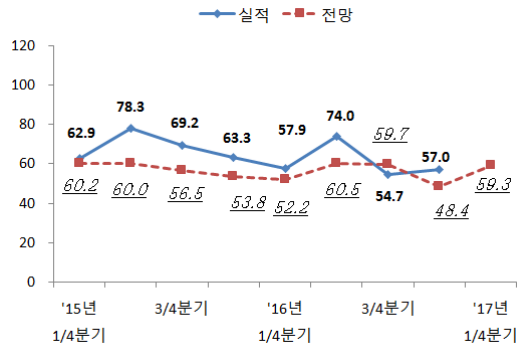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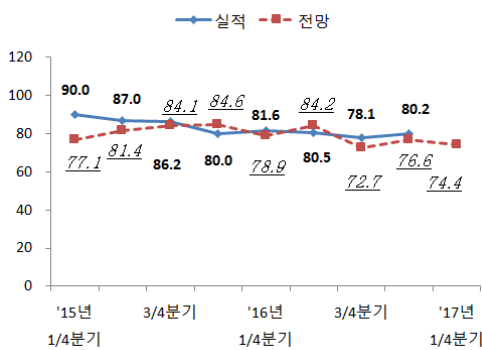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자금조달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낮은 수준임. 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 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자금조달은 금융권의 대출규제와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등의 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3분기에 크게 떨어졌던 자금조달지수는 이번 조사에서도 큰 폭의 개선은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는 여전히 전문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종합과 전문을 막론하고 적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기업규모별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지난 3/4분기와 마찬가지로 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형·중형·소형업체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크게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체가 토목중심업체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자금조달지수는 대형업체와 중형·소형업체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권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것임.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큰 폭으로 높게,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이 토목중심업종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남.
 - 2017년 1/4분기의 자금관련지수 전망은 공사대금수금이 74.4로 4/4분기보다 더욱 하락할 것으로, 자금조달지수는 59.3으로 이번 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추후 위축되는 건설시장 및 구조조정 등의 분위기 등을 반영해 종합건설업체 등이 긴축경영 등에 들어갈 경우 이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상황에도 영향을 끼치게 됨. 이럴 경우 전문건설업체 내에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

표 8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공사대금	'16년 4/4분기 평가	80.2	62.5	63.6	60.0	73.7	58.2	62.5	60.9
	'17년 1/4분기 전망	74.4	100.0	75.8	68.9	78.9	73.1	72.5	76.1
자금조달	'16년 4/4분기 평가	57.0	87.5	54.5	53.3	73.7	52.2	65.0	50.0
	'17년 1/4분기 전망	59.3	100.0	72.7	42.2	78.9	53.7	70.0	50.0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그림 5 | 전문건설업 자금관련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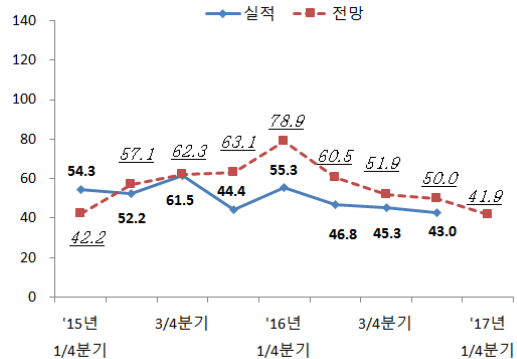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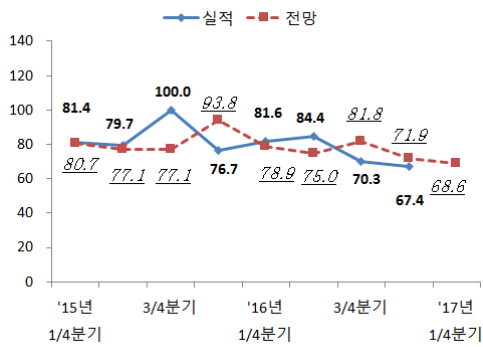
3.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 2016년 4/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67.4(70.3점→67.4점)으로 3/4분기보다 소폭 하락, 인건비지수도 43.0(45.3점→43.0점)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⁴⁾.
 - 인력수급지수는 지난 2분기 이후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동 조사가 실시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주요 원인으로서는 늘상 지적되는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와 이탈⁵⁾ 등을 꼽을 수 있음.
 -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보수와 근로여건 등의 처우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실제 공사예산에의 반영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은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0% 위축될 경우 산업생산은 41조원 가량, 고용은 26만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하지만 건설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우 등 건설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기업규모별 인력수급지수는 중형, 소형, 대형업체의 순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았으나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과 토목중심업종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인건비지수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게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은 나타났는데, 대형업체의 경우 중형업체의 2배 수준에 달했으며 소형업체는 중형업체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음. 지역과 업종별로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크게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축중심업종이 토목중심업종보다 크게 높았음.
- 2017년 1/4분기의 인력수급지수는 68.6으로 이번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인건비지수는 41.9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1/4분기는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의 비수기인 겨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의 전망치는 실제 조사결과에 근접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4) 인력수급지수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건설인력의 수요로 인해 인건비지수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5) 건설업종의 평균이직률은 약 13%대 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산업평균 이직률은 4% 수준임

표 9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인력수급	'16년 4/4분기 평가	67.4	62.5	69.7	66.7	78.9	64.2	67.5	67.4
	'17년 1/4분기 전망	68.6	62.5	72.7	66.7	73.7	67.2	65.0	71.7
인건비	'16년 4/4분기 평가	43.0	87.5	42.4	35.6	73.7	34.3	50.0	37.0
	'17년 1/4분기 전망	41.9	62.5	48.5	33.3	73.7	32.8	50.0	34.8



〈인력수급〉

〈인건비〉

그림 6 | 전문건설업 인력수급 및 인건비지수 추이

4.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 2016년 4/4분기의 자재수급지수⁶⁾⁷⁾는 93.0(101.6점→93.0점)으로 2016년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자재비지수는 51.2(53.1점→51.2점)로 2016년 1/4분기부터 시작된 하락추세를 지속함.

- 현재 건설현장에서 가장 수급이 어려운 자재로는 철근이 꼽히고 있으며 레미콘 역시 시멘트와 함께 골재가격의 급등에 따라 수급난이 제기되고 있음. 이같은 수급문제는 당연하게도 자재가격

6) 동 항목은 2013년까지 100~120 사이의 조사치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90대로 하락해 그 추세를 대부분 이어왔으며 이번 조사에서 다시 100을 넘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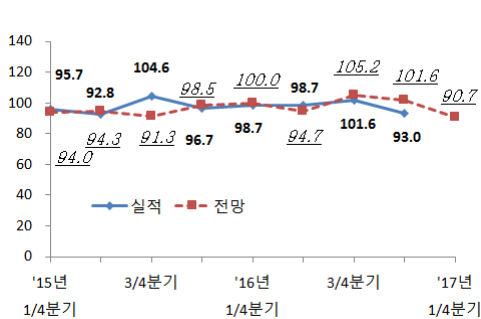
7) 통상 자재수급지수는 자재비지수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건설환경에서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임. 하지만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조정받기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자재비는 공사원가상승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함.

으로 이어지며 이를 두고 건설업계와 자재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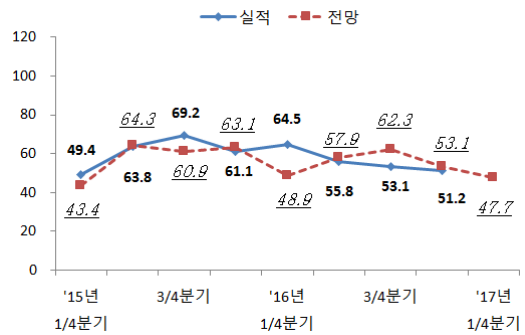
- 지난 믹스트럭과 철도파업 등의 여파로 인해 동계공사를 강행하는 현장들이 늘어나는 등으로 자재수요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며, 타워크레인같은 건설기계의 임대도 동일한 상황임. 더구나 2017년에 접어들어도 아파트 등의 착공물량을 감안하면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골재수급난의 경우 2017년에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레미콘 등 이와 관련된 기초자재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에 따라 자재비지수도 단시일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어려움.

표 10 | 2016년 4/4분기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비교)

구분	종합	기업규모			지역		업종		
		대	중	소	수도권	지방	건축중심	토목중심	
자재수급	'16년 4/4분기 평가	93.0	87.5	90.9	95.6	94.7	92.5	92.5	93.5
	'17년 1/4분기 전망	90.7	87.5	90.9	91.1	89.5	91.0	90.0	91.3
자재비	'16년 4/4분기 평가	51.2	87.5	54.5	42.2	73.7	44.8	65.0	39.1
	'17년 1/4분기 전망	47.7	75.0	54.5	37.8	73.7	40.3	57.5	39.1



〈자재수급〉



〈자재비〉

그림 7 | 전문건설업 자재수급 및 자재비지수 추이

IV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⁸⁾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주부진(37.6%)’이 변함없이 지적되고 있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22.4%)’도 지난 3/4분기(21.5%)에 이어 다수 응답으로 자리를 굳힘.
-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10.9), 경쟁심화(9.1%), 불확실한 경제상황(6.7%), 건설자재 가격상승(4.2%), 4대보험신고와 노무비관리 등 현장관리의 어려움(3.6%), 건설장비수급(3.0%), 불공정 거래(1.8%), 종합건설업체의 부도(0.6%)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응답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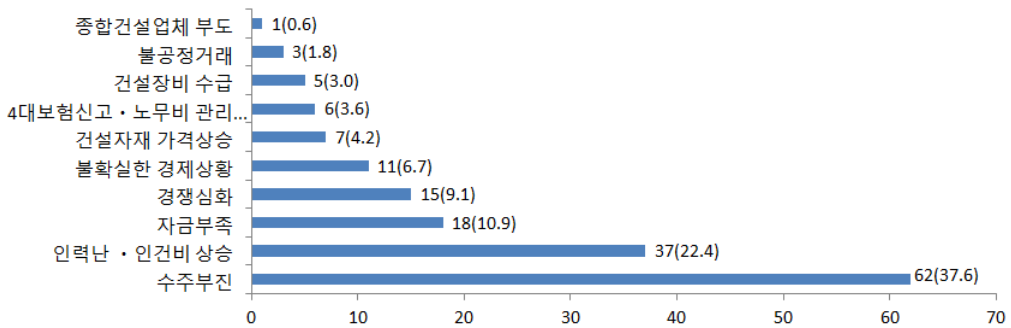


그림 8 | 전문건설업 경영애로사항(2016년 4/4분기)

8) 본 항목에서는 응답업체의 복수응답을 허용함